지관스님 "화합이 중요" 운산스님 "종단사일뿐"

조·태 총무원장 <태고종사> 견해차 해소

신년 인사 자리서 오해 소지 일소

<태고종사(太古宗史)> 발간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였던 조계종과 태고종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해하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조계종은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가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불교 태고종의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의 일부 문구들이 조계종을 폄하했다며 조계종 기관지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다.(본지 563호 2면기사 참조)

그러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1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정릉 경국사에 신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갈등 해소의 실타래가 풀렸다.

이날 운산 스님은 "<태고종사> 발간은 한국불교태고종의 해방이후 종단사를 태고종측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조계종을 폄하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조계종에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하겠고 어쨌든 앞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장 수열 스님도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하지만 태고종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가지고 일부 문구에 문제 제기를 하며 마치 큰 분쟁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도 "<태고종사> 발간에 대해 현재로서 종단의 공식적 입장은 없으며 앞으로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생각"이라며 "최근 두 종단의 화합분위기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혀 더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삼보륜 가사'로 통일

조계종, 의제 시행 선언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단 법계제도 정착 및 승가위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종단 가사의 통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총무국장 정범 스님은 "그동안 종단 스님들의 의제관리를 체계화하지 못해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법계에 따른 의제 시행이 필요하게 되어 가사를 통일하게 되었다"고 가사통일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해 10월13일 범어사에서 3급 중덕·정덕품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처음으로 삼보륜이 들어간 가사를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미(니)계, 구족계 수계 산림후에도 통일가사를 지급한다.

조용수 기자

제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한재숙 총장·이인자·고두심·여운계씨 등

한재숙 총장(위덕대), 이인자 교수(경기대 디자인공학부), 탤런트 고두심·여운계,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선정하는 '제2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됐다.

'여성불자 108인'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발굴,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개발원은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 최근 2년간의 언론자료와 인터넷 검색, 인명록 검색, 주요 사찰과 신행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위원들이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108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김인숙 여성개발원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김용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 등 6명 참여했다.

'여성불자 108인'은 교육, 포교신행, 자원봉사,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운동, 정치·경제·행정 등 크게 12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여성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여성들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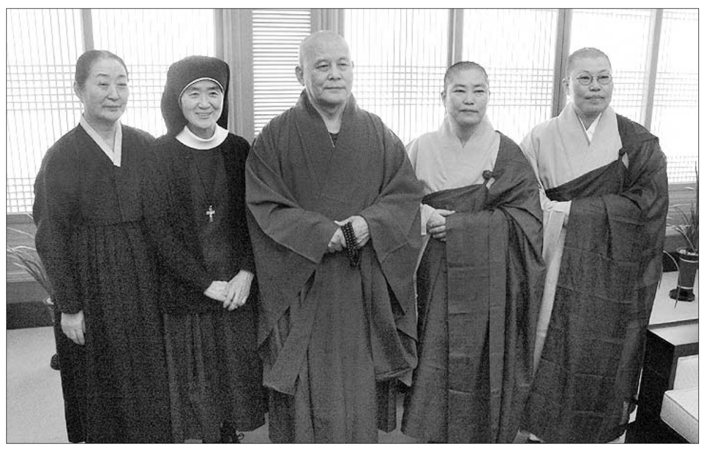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은 "선정된 108인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수락 여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양한 사람을 제외한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108인 선정 사업을 통해 여성불자 전문가 그룹의 상호 협조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108인은 오는 3월경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인증서를 받으며, 이후 여성불자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와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은 108인 명단

(교육)김남선 임완숙 한재숙 김외숙 박혜인 조희금 김영선 김 진 김주현 이명순 이정호 손재현 이선옥 이인자 임지형 최성은 김복순 김영미 김애주 이규미 이혜은 정영희 조은수 황옥자 백추자 김선정 권영경 (단체)김자경 임선학 정안숙 곽명희 권경희 권대자 왕선자 이숙자 홍경희 홍말연 (문화예술)강형진 김경녀 김영임 백현순 신동춘 심재영 이나경 이명미 정승희 진우기 한숙희 이은경 (방송·언론)유혜선 이현정 최현태 고두심 나문희 여운계 임부희 한혜숙 노희경 이윤수 김주효 의료보건 오현숙 이영숙 홍재숙 황보선 복지 김수현 김영숙 이병순 이혜숙 (사회운동)김용숙 오선주 이연주 (언론·출판)임희경 최정희 황영채 (자원봉사)김상문 김상인 김영자 박명자 이문희 (정치·경제·행정)고순자 김영주 서분례 신 명 신현옥 심계진 윤원호 (포교·신행)김민희 박명혜 양혜순 유남영 윤미혜 이 란 이령자 이민자 이영채 이혜산 조길순 조정희 천양자 최혜경

여수령 기자



성지순례 다녀오겠습니다 불교·가톨릭·원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 임원진이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삼소회 소속 회원 16명이 2월 5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된 성지순례에 앞서 인사차 들린 것.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든 일은 세계적으로도 종교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왼쪽부터 김지정 교무, 오인숙 수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본각 스님, 진명 스님.

글·사진=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내달 철거될 충절사 새로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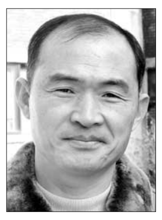
법화 스님·(주)청호패키지 "법당건립 돕겠다"

군법당-사찰-기업 연계 캠페인 첫 결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지가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 사찰, 군부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군법당 건립 서원을 세웠다. 군법당-사찰-기업 연계 캠페인의 첫 결실이다.

법화 스님

강정기 사장


서창욱 대대장

이기승 주임원사

여주 행운정사 주지 법화(조동종 규정부장) 스님은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가 군 병영개선 현대화 사업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법당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본지에 전해왔다. 호국 충절사는 부대 내무반을 개조해 만든 법당으로 올 3월 헐릴 예정.

법화 스님은 법당이 없어지기 이전까지 매월 한차례씩 장병 위문을 하고 법당 건립을 위해 설계 등의 작업을 선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화 스님은 그동안 손수 사찰을 건립해 왔고 심지어 군 교회 건설 경험까지 갖고 있는 등 군부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5일 호국 충절사 수계법회에 참석해 법당 건립 발원을 세웠다는 법화 스님은 "재정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을 다해 법당 건립 불사에 앞장서고 싶다"며 "조립식이나마 법당이 건립되어 장병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랑방같은 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용기를 제작하는 청호패키지(사장 강정기)도 호국 충절사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일봉으로 불사 후원금을 보시키로 했다. 강정기 사장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포교사로 현재 고양 벽제병원과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에 두차례 호국 충절사 법회를 전담하고 있다. 향후 불교대학원 동기 스님 및 포교사를 중심으로 법당 건립 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화주 섭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강 사장의 처남 등 가족들은 호국 충절사 법회 위문을 가기 위해 떡, 음료수 등을 손수 준비하며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강정기 사장은 "조그마한 가족기업이어서 큰 돈을 희사할 수는 없지만 성심성의껏 보시할 계획"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돌격대대 군법당 건립에 동참해 군장병들이 하루빨리 법회를 볼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진부대 서창욱 돌격대대장도 기업체와 사찰의 군법당 건립 노력이 가시화 된다면 군 내부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대대장은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법당 건립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군 종교시설들이 외부의 후원금으로 상당수 지어진 만큼 후원을 한다면 내부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돌격대대 이기승 주임원사도 "내무반을 개조한 막사지만 30년간 부처님의 법을 전한 곳이 바로 충절사"라며 "70여명의 군 불자들의 보금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부처님 법을 배우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불자들의 후원을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 우 승 가 대 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 내용		강 의 내 용	강 의 과 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 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 예수재,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서예(범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